

## 「오카야마시장 메일 매거진(127)」레이와 2년 5월 1일 호

【레이와 2년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5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긴급 대응으로 5월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현시점에서의 가장 큰 과제인 보건 의료체제 강화 등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 시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약 777억 엔 증가한 금액이며, 이에 따른 재원은 주로 정부지출금으로 대응합니다. 시의 일반 재원은 약 36억 엔의 세출이 증가 되어 이번과 같은 예측불가 사태에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재정 조정 기금 144억 엔 중 약 4분의 1을 사용하게 됩니다.

향후의 재정 운영을 고려해도 상당한 지출이 되겠지만 현시점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업 활동 없이 지역 경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 단독으로 25억 엔 규모의, 현재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등의 사업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 독자적인 「사업 지속 지원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중 한 달 동안,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시내 중소기업에 20만 엔, 소규모 사업자에게 10만 엔을 긴급 지급합니다. 본 지원금은 금일(5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단, 감염 방지를 위해 우편 신청 접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업태 전환을 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향상 보조금」을 조성하고 인터넷 통신판매나 배달 등의 판로 개척, 텔레워크 도입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중소기업에 최대 20만 엔, 소규모 사업자에게 최대 10만 엔을 보조합니다.

대상은 전년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로 하며 6월 접수 개시를 위해서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자 지원 접수창구는 오카야마 상공회의소와 시내 각 상공회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에 대한 지원으로는 1인당 10만 엔의 「특별 정액 지급금(특별 재난 지원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휴 중의 응대 등 관계기관이나 관련업계 분들의 협조를 받아 마이넘버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늘(5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빠르면 5월 12일경 입금, 우편 신청의 경우는 신청서를 5월 14일경부터 발송하여 빠르면 5월 25일경 지급될 전망입니다.

또, 5월 20일까지 임시 휴교를 연장하는 시립 초·중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학습 프린트 등에 ICT 교재를 더해 가정 학습의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별 긴급 대응에 따른 편성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지원대책은 리먼 사태 때에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주고쿠, 시코쿠에서도 시 단독사업으로 사업 지속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시점에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수습 상황에 따라 더욱 긴급한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감과 동시에 코로나 종식 후의 적극적인 경제 회복 노력과 소비촉진 대책에 관해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가며 발빠르게 예산을 편성해 나갈 생각입니다.